〈 時 論 〉

"초원의 집"의 敎訓

지난해 만 大邱 琴湖 관광 호텔 화재시 Case-study를 했던 적이 있다. 多數의 인명 피해를 내기나 기타 社會의 耳目이 集中되는 火災는 일단 Study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

資料를 分析整理해 가면서 바랐던 것은—비단 이 때 뿐만은 아니었지만—防災施設이 제대로 活用된 證據가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었다. "층간 주계단실의 방화문은 있었으나 개방 상태에 있었고,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地區警鐘은 Off 상태에 있었다"는 결과가 나왔을 때 실무자들은 맥이 빠지 버렸다.

"안전 점검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적인가, 과연 안전 점검의 효과는 무엇인가?" 등의 자책감 같은 것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.

지난 4월 18일에는 또다시 大邱 초원의 집(Discotheque)에서 27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가 생겼다. 防禦部에서는 直接出張이 여의치 않자 大邱支部와 關係機關에 資料를 의뢰하여 火災發生 約3日만에 두 통의 회답을 입수하였다. 이번 事故의 主犯인 主階段의 사진 몇 장을 대했을 때 "불과 23段의 층계 때문에 27명의 꽃다운 젊음이 개죽음을 당하다니!" 하는 허탈감 같은 것이 있었다.

비록 안전 점검을 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지만 실사 안전 점검을 하였던들 현행 건축법상 규제대상 이하인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니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의 한계를 느끼게 하였다.

이 두 사건에 대하여 英國의 'Fire Protection Association'과 日本의 '消防研究所'에서는 詳細한 技術的 資料를 보내달라는 便紙를 보내왔다. 죽은 자료, 획일적인 자료가 아닌 생생한 자료를 求하고자 하는 것이다. 뭔지 너 새로운 것은 없는가, 뭔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있었는가를 검토하자는 것이리라.

防禦部가 防火情報를 비롯한 各種資料를 技術部署에 提供하는 이유는 좀더 생생한 우리의 것을 만들자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. 책에서 몇 자 외서 하는 안전 점검이라는 헛뜬는 말이 참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점검원 스스로가 증명을 해 주리면 防災에 대하여 좀더 생생한 우리의 것, 아니 내 것이 많아지야 한다. 예컨데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방화 관계 법규는 手段은 될 수 있지만 目的은 될 수 없다.

"초원의 집" 말고도 대형 공장, 지하 상가, 터널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대형 화재 참사가 도사리고 있는 대상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. 또한 폭 120cm의 2층 계단이 27명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. 이제는 두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火落의 防災 事業의 方向 設定도 이느 정도 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.